

“위기지원활동가 양성 및 위기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지원” 당사자 쉼터(회복마을)

I. 필요성

○ 정신장애인의 다양한 위기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인프라 부족

현재 위기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이 모호하여, 센터에 의한 응급대응팀 및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가동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또한 지자체는 응급대응체계를 통해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에 연계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해나 타해 위험을 현장에서 판단할만한 매뉴얼이 부재하고 응급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례관리에 국한되어 당사자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이용표·배진영,2020)

○ 포괄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위기지원의 절실성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위기’와 ‘응급’ 그리고 입원의 개념을 동일시 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정신과적 위기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입원이 강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당시 자타해 위험성이 없더라도 일상적인 위기에서 위기 상황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응급상황의 전초적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위기는 급성기, 자해 및 자살시도, 화상, 공격성, 소진 등으로 나타나기 하지만, 당사자의 처해진 환경 및 상황이 위기일 수 있다.

따라서 ‘협력의 위기’ 즉 자타해 위험 중심의 응급상황에서 ‘광의의 위기’로 시각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위기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2021, 한국장애인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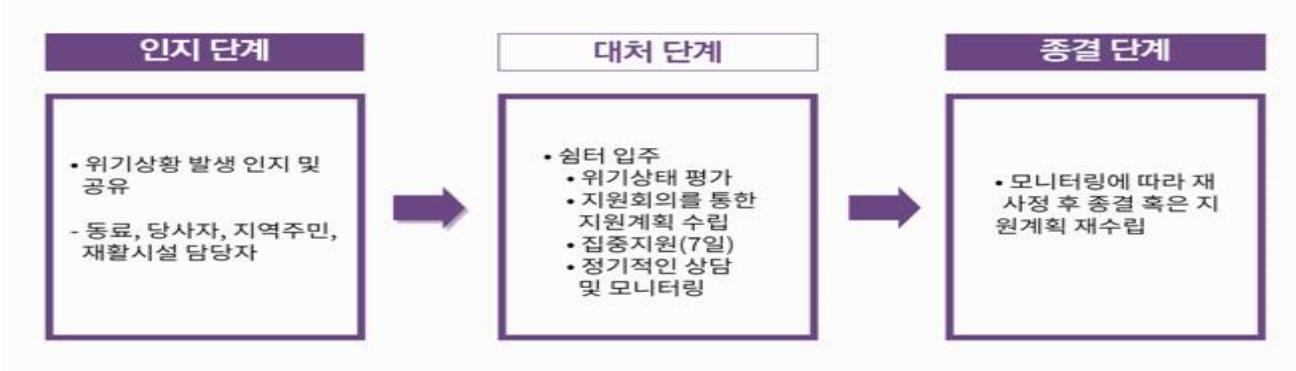
정신장애인의 경우 증상적, 정서적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한다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및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위기 발생 시 재입원을 통한 회전문 현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다양한 ‘위기’에 직면했을 때 현재의 불필요한 입원이 아닌 당사자가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일정 기간 자신의 회복능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통해 의료적 관점에만 매몰되는 현상을 예방 및 방지하여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자기실현(Self-expression)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II. 세부내용

- 1) 운영일시 : 2022년 5월 ~ 12월
- 2) 운영장소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 167, 4층
- 3) 대 상 :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 4) 내 용 : 1) 당사자의 다양한 위기상황 시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하며 위기상황 극복 및 일상생활
복귀
2) 당사자 커뮤니티 공간 활용(문화·여가·자조모임 등)
- 5) 서비스내용 : 1) 동료지원활동
- 동료지원활동가를 통한 지지그룹 형성
2) 정신장애인지립생활센터 활동가 지원
- 상담 및 모니터링
-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위기상황 시 대응
3) 쉼터생활지원
- 식생활관리, 건강 및 증상관리, 위생관리
4) 권익옹호지원
- 6) 수행인력 : 총 10명
 - 1) 수퍼바이저 1명(당사자/당사자단체 활동경력 8년)
 - 2) 쉼터운영총괄 1명(비당사자/주거시설 근무경력 7년)
 - 3) 복지부사업 주간 전담인력 1명(비당사자)
 - 4) 쉼터 야간근무 전담인력 1명(비당사자)
 - 5) 동료지원활동가 6명

Ⅲ. 위기지원흐름도



Ⅳ. 기대효과

○ 당사자 위기쉼터 시범운영을 통해 당사자의 회복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에서 주체적인 자기실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당사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장애인들이 포괄적인 위기상황 시 단기간 이용하여 회복능력을 향상시켜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재입원을 통한 회전문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전달체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도 이용이 제한적이고 정신건강전달체계 상의 서비스는 상당히 미발달되어 있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당사자들의 문화·여가생활·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케어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Ⅴ. 관련사진

